매하구 견과산업단지 100% 입주률로 생산에 만전

매하구첨단기술산업개발구 견과산업단지에 들어서면 운수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나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생산직장마다에서 기계소리들이 귀맛좋게 들려온다. 단지내에 입주한 8 개 견과가공기업들에서 겨울철 주문에 맞춰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경상이다.

지난해 이 단지에 입주한 매하구시성신식품유한회사는 단지내의 규모화 견과류 가공기업이다. 45 명 종업원, 6,500 평방메터의 부지에 7 개의 현대화 잣 생산라인을 확보한 이 회사는 매일 25 톤의 잣을 상품화하고 있다.

회사의 총경리 조천은 "설립된 지 20 년 넘는 저희 회사가 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것은 매하구의 지리적 우세와 발전 전망성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입주해서 생산에 투입하기까지 단지에서 여러 면으로 정책적 지지와 부축 지도를 아끼지 않았기에 저희 기업은 가장 짧은 시간내에 효과성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생산량과 주문도 따라서 지난해보다 45% 증가되였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는 7,000 만원의 생산액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쁘게 소개한다.

송미식품유한회사 생산직장에서도 견과 상품 출고를 다그치고 있다. "저희 회사는 투자유치를 통해 올해 1 월에 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데 10 월에 정식 생산에 투입했어요. 단지에서 저희 회사에 맞춤형으로 생산직장을 마련해주었기에 우리야말로 '가방만 들고 입주'한 기업이라 할 수 있지요. 서류 준비 등 절차에서도 단지에서 '보모식' 써비스를 제공하고 효률성을 보장하였기에 저희 회사는 당해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에서는 1,200 톤 좌우의 잣을 가공할 전망입니다. 래년이면 현유 량호한 발전 토대에서 '송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신제품 개발로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송미식품유한회사 판공실 책임자 리영붕은 이렇게 소개한다.

매하구시의 견과산업은 40 여년의 발전 과정을 거쳐 견과시장에서 나날이 성숙되여오면서 품종이 풍부하고 커버면이 넓은 산업집군으로 발전했으며 2023 년에는 글로벌 견과협회로부터 '지구촌 최대 잣집산중심'으로 명명받아 중국 나아가 글로벌 동류 산업중에서의 중요한 지위를 확립하였다.

매하구시 견과산업단지는 2021 년에 13 만 9,400 평방메터의 부지면적에 4 억 3,000 만원을 투자하여 건설, 2025 년 9 월에 전부 준공될 예정이다. 단지는 9 개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는데 현재 이미 100% 입주률을 실현했다. 생산기업이 8 개, 그외 다른 한 기업은 이미 랭동창고로 입주했다. 지금까지 단지는 생산액 2,000 만원을 실현했는데 입주기업이 전부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 년간 생산액이 4 억 5,000 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하구시 견과산업단지는 경영환경을 대대적으로 최적화하고 전담부서에서 정확한 써비스를 제공한다. 입주 기업에 대한 원스톱 써비스, 투과식 써비스를 강화하고 정확히 시책하며 발전 과정에서 부딪치는 기업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단지는 기업에 대해 전 과정 도움과 대리 써비스를 실시하여 각 행정관리부문을 조률하고 제반 수속을 신속히 처리해 기업이 가장 짧은 시간내에 생산에 투입되고 효과를 거두도록 도와준다." 매하구시하동도시화치업유한회사 리사장 관욱은 이렇게 말했다. / 길림일보

훈춘종합보세구

다국전자상거래 '1210' 보세수출업무 개통

11 일, 훈춘역무통 (易贸通) 전자상거래유한회사가 다국전자상거래 '1210' 보세수출 모식으로 신고한 일련의 전자제품이 훈춘종합보세구에서 순조롭게 통관되였다. 이는 우리 성의 다국전자상거래 '1210' 보세수출업무가 순조롭게 개통되였음을 표징한다.

료해한 데 의하면 '1210' 보세수출은 다국전자상거래에 관한 감독관리 모식으로서 화물을 보세식으로 구역에 진입시키고 전자상거래 플래트홈을 통해 대외에 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는 수출 업무이다. '1210' 보세수출 모식을 통해 기업은 국내 화물을 종합보세구내에 저장할 수 있으며 종합보세구의 '보세창고 저장, 분배 집산, 국제 운송' 등 기능에 의탁하여 물류 원가를 크게 최적화하고 시효를 단축하는 동시에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하여 기업의 자금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다국전자상거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훈춘역무통전자상거래유한회사의 주요 책임자는 "소비자가 주문해서 상품을 발송하기까지 빠르면 24 시간도 안 걸리며 해외 소비자들은 주문한 후 빠르면 약 7 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소개한다.

'1210' 보세수출업무의 순조로운 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훈춘해관은 주동적으로 기업을 찾아가 봉사하고 기업을 위해 다국전자상거래 정책과 통관 방식을 설명해주며 기업이 장소 건설, 장부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전면적으로 인도 봉사하고 기업의 화물이 보세구에 진입하고 소포가 출국할 때 규범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하여 화물의 쾌속 통관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 훈춘해관은 종합보세구 등 개방형 기능 플래트홈에 의탁하여 통관 써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보세 수출입 업무의 발전을 부단히 추진하며 우리 성 대외무역기업이 다국전자상거래 플래트홈을 운용하여 해외시장을 확장하도록 추진할뿐더러 다국전자상거래기업의 출해 발전을 적극 인도하게 된다.

/ 길림일보

제 28 회 장춘빙설축제 12 월 17 일 개막

12 일, 장춘시정부 보도판공실 소식공개회에 의하면 '북국 춘성 눈놀이 천지'를 주제로 하는 제 28 회 장춘빙설축제가 12 월 17 일 장춘 '빙설신천지'와 동시에 막을 올린다. 이를 기점으로 전 시 여러 큰 빙설오락 대상의 전역적인 배치, 개원 및 빙설활동이 이어지며 장춘의 '굿 빙설놀이' 명함을 더 빛내게 된다. 이번 시즌의 장춘빙설축제는 장춘시정부, 성문화관광청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1998 년부터 시작된 장춘빙설축제는 부단한 발전과 승화를 거쳐 이미 국내에서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진 빙설관광축제 행사로 자리매김되였다.

이번 장춘빙설축제는 알심 들여 설계한 빙설놀이 코스와 활동, 여러가지 몰입식 공연과 상호 련결 체험 내용으로 '굿 빙설놀이 천지'의 독특한 매력을 펼치게 된다. 빙설놀이구역에서는 성대한 순회활동이 펼쳐지는데 관광객들은 '동북신수', '갑옷장령', '흰눈요정', '흰눈천사' 로 구성된 '복배달' 소분대와 령거리로 즐기는 등 행운을 지니게 된다.

축제 기간에 장춘시에서는 '주마다 이벤트, 다달이 깜짝 선물' 빙설 즐기기 광경이 펼쳐진다. 2024 장춘빙설캠핑시즌을 혁신적으로 개최하여 캠핑 겨울 낚시, 난로를 둘러싸고 차 끓여 마시기 등 빙설 캠핑 체험 활동을 선보이게 되며 제 1 회 대학생빙설음악도전경기 계렬 활동, '겨울방학은 장춘에서' 계렬 활동을 전개하며 대학생을 주체로 하는 '장춘문화관광청춘추천관'을 조직한다. 또한 바사국제스키축제, 전국총공회종업원동계체육대회, 전국중소학교 동계운동 계렬 활동, 전민빙설카니발 등 계렬 빙설경기 및 빙설체험 활동도 출범시킨다.

중앙가극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빙설의 약속' 교향음악회를 가지며 곡예, 화극, 평극 등 정품 무대들을 펼친다. 제 9 회 장춘재즈음악주간, 장춘영화성 주말음악회, 신년음악회 등 정품 공연 및 독특한 풍격의 록음악회 등 공연활동이 전반 빙설축제 기간에 이어지게 된다.

동시에 장춘시는 일련의 얼음조각물을 구축하여 도시를 빙설세계로 만든다. 그리고 특색에 초점을 맞추고 관광지, 상권, 문화박람, 체육장 등을 련결하여 빙설을 감상하고 과학교육연구 등 주제의 정품 코스 12 개를 내놓는다. 빙설소비축제를 펼쳐 백화점, 관광지 및 빙설놀이터가 련동하며 입장권 할인, 련표 우대, 패키지 우대 등 조합 소비제품을 출시하고 장춘 제 1 회 빙설미식회를 개최하여 상업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전 시 각 현 (시, 구) 도 당지 실정에 맞는 주제활동을 출범시켜 전역 련동을 실현한다. / 길림일보

역내외 과학기술력량 집결시켜 인삼산업 혁신 발전 도모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혁신대회서 역내외 전문가들 지혜 모아

일전에 제 3 회 세계중의약과학기술대회, 2024 장춘국제의약건강산업박람회의 한개 활동으로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혁신대회가 동북아국제박람쎈터에서 개최되였다. 중국공정원 원사 장백례, 중국과학원 원사 진학사 및 성내외 여러 중의약 전문가들이 대회에서 발언, 공동으로 인삼산업의 혁신 발전을 도모하였다.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혁신대회는 길림성 장백산 인삼산업계획 및 과학연구 성과의 전환을 두드러지게 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산업의 일체화 발전에 립각하여 역내외 과학연구기구, 대학교, 기업, 원사팀의 지혜와 력량을 집결시켜 길림성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였다. 회의에서 장백례원사는 장춘시중의약 (인삼) 산업전문가위원회 주임위원으로 초빙되였고 대회 주제보고 단계에서 〈새시대 중의약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사고〉 보고를 했다.

중국의학과학원 약용식물연구소 전임 소장 손효파, 중국과학원 상해약물연구소 교수 과덕안, 장춘중의약대학 종신교수 자조대경, 장춘중의약대학 종신교수 왕단, 한국 경희대학 교수 량덕춘, 일본대학 교수 요시다우지료는 인삼산업 발전, 표준연구, 제품연구개발, 성과전환 등을 둘러싸고 학술보고를 진행하여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의 주요 방향, 구체적인 써비스 경로를 한층 더 분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외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소 대표 등 500 여명이 참석했다.

/ 길림일보

차 대용 약선음료에 관심 쏠려

제 3 회 세계중의약과학기술대회, 2024 장춘국제의약건강산업박람회 기간에 중의약문화체험전시구 중의약문화관에서 차 대용 각종 약선음료들이 참관자들의 발길을 끌었다.

/ 길림일보

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에서 거행

▶ 1 면에서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인 판단에 사상과 의지를 자각적으로 통일시키고 행동을 통일시켜야 한다. 대세를 파악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는 한편 어려움을 직시하고 명석함을 유지해야 한다. 래년 경제사업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목표와 인도를 중시하며 성장과 취업이 안정되고 물가가 합리하게 반등하는 최적화 조합을 힘써 구성해야 한다.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시기와 강도를 추구해야 한다. 여러가지 사업을 일찍 예측하고 실질적으로 단단히 틀어쥐며 강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체계적인 사유를 강화하고 여러가지 정책과 개혁개방의 조치들이 조률적으로 배합되도록 중시하고 정책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관건적인 부분에 힘을 쏟아 래년 경제사업의 중점 과업을 원만히 수행해야 한다. 수요가 부족한 두드러진 병증에 관하여 내수 특히는 주민 소비 수요를 적극 진작시켜야 한다. 발전을 제약하는 심차원적 장애와 외부의 도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산업의 기제 전환과 승격의 제약에 관해서는 신구동력에너지의 안정적인 후속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 경영에서의 관심사항과 수요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감독관리와 봉사를 최적화해야 한다. 중점 분야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 처리를 계속하여 힘껏 추진해야 한다. 시달의 효과성을 힘써 제고하고 기층의 열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하며 경영환경을 계속하여 최적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합력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격려를 강화하여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자신감을 증가하고 어려움을 맞받아나가며 힘써 분발하여 당중앙의 여러가지 결정과 배치가 실제적으로 시달되게 확보해야 한다. 정면적인 격려를 강화하여 일하고 창업하는 내생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기층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을 덜어주어 진정으로 일에 몰두하려 하고 할 줄 아는 간부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부패를 척결하고 공평과 공정이 있는 시장환경과 맑고 바른 기풍이 있는 경영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진실과 실속 추구를 견지하고 상급에 대한 표현에만 열중하고 하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효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작업 안전을 잘 틀어쥐며 사회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때에 대응해야 한다. 협동과 련동을 강화하고 본위주의를 반대하며 관철을 틀어쥐는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예기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실시와 예기 인도를 협동 추진해야 한다. 정책의 인도력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세계정세와 국정, 당정, 사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계획을 강화하며 중앙 '15.5' 전망계획 건의를 제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년말년시 민생보장과 안전안정보장의 제반 사업을 잘하고 각종 모순분쟁과 위험부담 및 잠재적 위험을 깊이 조사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반 대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전당과 전국, 전사회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회의의 제반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하며 고품질 발전의 실제적인 효과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지도자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 신강생산건설병퇀의 당정 주요 책임 동지,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적 금융기구와 기업, 중앙군위 기관 여러 부문 주요 책임 동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 신화사

55 갈래 빙설관광 직통차 로선 개설

길림성당위 12 기 5 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락착하고 길림성 만억급 관광산업 발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봉사하며 전 성 새 빙설시즌 사업 전문회의의 포치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2025 년 3 월말까지 길림성교통운수청은 교통운수부문을 인솔하여 '새로운 빙설시즌 관광 호위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게 된다. 운수조직, 집법감독, 써비스공급, 문명써비스, 운수와 관광의 융합, 로선 원활 보장, 안전감독관리 등 방면으로부터 착수하여 빙설관광 운수 써비스 능력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길림성으로 관광 오는 려행객들에게 량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당면 각급 교통운수부문은 전면적으로 지정 일터를 지키고 일선을 고수하며 새로운 빙설시즌을 호위하고 있다. 전 성은 55 갈래 빙설관광 직통차 로선, 53 갈래 관광대중교통 로선, 35 갈래 야간 대중교통 로선을 운행하고 응급용 뻐스 415 대를 준비하였으며 려객 흐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증편하게 된다. 동시에 각지에서 무료승차, 우대승차 등 혜민 써비스를 모색하여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순환택시 6 만 8,000 대, 인터넷예약택시 2 만 3,000 대를 투입하는데 그중 6 개 중점 보장지역에 순환택시 2 만 8,000 대, 인터넷예약택시 2 만 3,000 대를 투입하여 대중들의 출행 획득감을 제고하고 수송력 써비스 공급을 보장하게 된다.

길림성 각지의 교통운수부문은 '제일 마지막 관광객의 출행까지 보장'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점 관광지, 스키장과 적극 련계하여 관광객의 상황을 파악하며 도시뻐스, 택시, 맞춤형 려객운송, 관광전세뻐스, 인터넷예약택시 등 수송력을 통일적으로 투입하고 야간 입항 항공편과 입항 렬차의 련결 환승 운수조직을 차질없이 중점적으로 잘하기로 했다. 지역내 미세 순환 뻐스를 개통하여 대형 호텔, 도시 열점 관광지, 미식 집결지, 대형 상업종합체 등 지역을 련결시킨다. 순환택시 인터넷 예약화를 적극 추진하고 '길지 (吉智) 출행' 차임대 플래트홈과 장춘, 길림, 장백산, 연길, 송원, 통화, 백산 등지 임대 기업의 련결협력을 전폭으로 지지하여 대중의 차별화된 출행 수요를 만족시키게 된다.

/ 길림일보